제2의 '비밀의 숲' 아닌 제1의 '자백' 유종의 미

마지막회, 6.3%로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자백'이 웰메이드 장르물이라는 호평 속 막을 내렸다.

12일 방송된 tvN 토일극 '자백' 최종회에서는 이준호(최도현)와 유재명(기춘호), 신현빈(하유리) 남기애(진여사)의 합동 플레이로 최광일(최필수)의 무죄를 밝히고 문성근(추명근) 김영훈(박시강) 등을 법정에 세웠다.

이준호와 유재명이 화예에서 찾은 녹음기 속에는 그날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있었다. 문성근의 잔혹한 면모에 모두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이는 법정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녹음한 사람이 노선후 검사라는 걸 안 문성근 측이 불법 증거물이라고 주장했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대신 최광일이 무죄라는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었다.

의기양양하게 법원을 나선 김영훈에게 신현빈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날렸다. 이준호와 유재명은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까지 계산했고, 유재명은 약간의 연기력을 발휘해 최대훈(황비서)을 압박했다. 이에 최대훈은 문성근이 심만(김선희) 살인을 교사했다는 증거가 되는 통화 녹취를 유재명에게 건넸다. 문성근은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됐고 김영훈은 방산 비리 증거 문서가 발견되면서 붙잡혔다.

정치권이 움직이자 특검이 시작됐다. 아버지가 살해 누명을 벗은 이준호는 김중기(양인범)의 추천으로 특검 검사가 됐다. 유재명도 특검팀에 들어가게 됐다. 노선후 검사의 심장을 이식받은 이준호는 노선후 검사의 의지까지 이어받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자백'은 tvN이 '시그널' '비밀의 숲'을 잇는 웰메이드 장르물이 될 것이라며 자신만만하게 내놓은 작품. 자신감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다. 시작은 '김선희 살인사건'이라는 한 평범한 여자의 죽음이었지만 여기에 얽히고설킨 더러운 욕망과 권력의 민낯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전율을 선사했다. 촘촘한 판을 설계한 작가와 이를 구현한 연출의 하모니가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힘이었다.

법정 수사물이라는 이유로 '비밀의 숲'과 많이 비교됐지만 절대로 아류작은 아니었다. '자백'은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을 활용한 반전과 '자백'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진 사건 전개를 통해 '비밀의 숲'과는 또 다른 길을 걸었다. 많은 사람이 복잡하게 연결된 사건을 다룬 만큼 쉽지는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만큼 수준 높은 전개로 드라마 팬을 열광하게 했다.

이준호·유재명 등 주인공부터 류경수·윤경호·김영훈·문성근에 이르기까지 명품 연기력은 '자백'의 원동력이었다. 최근 몇 작품을 통해 완벽하게 배우로 자리매김 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준호는 '자백'에서 더 발전된 기량을 보여줬다. 유재명은 말할 필요도 없이 기춘호라는 역할에 녹아들었고, 이준호와 둘도 없는 콤비 케미를 발산했다. 신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연기력으로 초반 화제성을 이끈 류경수는 '자백'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회 6.3%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닐슨 코리아, 전국 유료플랫폼 가입 가구 기준)

'자백' 후속으로는 '아스달 연대기'가 6월 1일 첫 방송된다.

'궁민남편' 아재들의 소탈한 일탈…함께여서 따뜻했다

'궁민남편' 멤버들의 일탈은 마무리됐지만 추억은 남았다.

12일 MBC 예능프로그램 '궁민남편'이 종영했다. 차인표, 김용만, 안정환, 권오중, 조태관은 시청자의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수익금을 기부하는 일일 카페를 열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손님들이 카페를 찾았다. 멤버들은 서투르지만 직접 음료를 만들고 서빙을 했다. 손님들이 너무 많이 몰려 헤매기도 했으나 무사히 카페 운영을 해나갔다. 평소 '궁민남편'을 즐겨보는 시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심태윤과 현진영, 김수용, 김영한 소장, 백패킹을 함께했던 민미정 등 '궁민남편'에 출연해 멤버들과 추억을 쌓았던 출연자들도 방문했다. 조태관 아내 노혜리는 아들 조동유 군을 데리고 등장했다. "오늘 아니면 언제 뵐까 싶어서 왔다. 오빠 집에서 울었다. 저랑 새벽까지 둘이 같이 울다가 잠들었다"라며 털어놓았다. 이에 권오중은 눈물을 흘렸다.

'궁민남편'은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빠로 살기 위해 포기하는 것이 많았던 대한민국 남편들을 위해 MC군단이 직접 그들의 로망을 실현하는 모습을 담은 예능이었다. 차인표부터 김용만, 안정환, 권오중, 조태관까지 우리네 남편을 대변했다. 화려한 연예인이지만 가정에서는 특별한 취미 활동 없이 평범하게 지냈다.

열심히 달리는 보통의 가장을 대표하고 대리만족을 시켜줘야 하는 기획 의도대로 허황되고 박탈감을 주는 게 아닌 공감할 수 있는 '놀기'를 선보였다.

첫 번째 일탈인 힙합부터 축구 직관, 비박, 낚시, 소울푸드 다시 먹어보기, 놀이기구 탑승하기, 자연인 체험, 시속 40km 차 골인과 35m 골대슛 시도하기, 출사 여행, 갱년기 파티, 육아 수업, 첫 MT, 베트남 경기 직관까지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갱년기 파티에서 권오중이 아들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특히 진솔했다.

처음에는 보통의 관찰 예능 프로그램과 다름없어 보였다. 주인공이 남편이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 연예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는 내용이 유사했다. 하지만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멤버들이 무언가를 '함께' 처음 시도하는 모습이 점차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강렬한 재미를 준 건 아니나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으로 소탈하고 따뜻한 매력을 풍겼다.

멤버들의 '케미'가 인상 깊었다. 중년 남자들의 솔직한 입담과 함께 어딘지 어색하고 산만하지만 코믹한 호흡이 재미를 줬다. 능력자 남편 차인표의 반전 예능감부터 안정환, 김용만의 친근함, 예능 신생아 막내 조태관까지 부담 없이 볼만했다. 처음에는 말을 놓지 못할 정도로 낯을 가리기도 했지만 조금씩 친해지는 과정이 관전 포인트였다. 친해짐이 절정에 달한 순간 막을 내려 아쉬움을 남기게 됐다.

'대탈출2', 역대급 공포 속 강호동·신동 빛나는 추리력 보이며 맹활약

강호동과 신동이 빛나는 추리로 맹활약을 보여줬다.

12일 방송된 tvN '대탈출2'에서는 조마테오 정신병원에 갇힌 멤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여섯 명의 멤버들은 각각 두 명씩 다른 병실에 들어갔다. 강호동-신동, 김종민-김동현, 유병재-피오가 팀을 이뤘다. 안내에 따라 옷을 갈아입은 세 팀은 병실에 원래 있던 환자와 지형지물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강호동과 신동은 단연 빛나는 추리력을 보여줬다. 여러 인격을 가진 최다중과 있게 된 두 사람은 최다중의 인격 하나하나를 허투루 보지 않았다. 그가 하는 말에 귀기울이고 기억했다. 또 냉장고가 잠겨있는 걸 확인하고 바로 잠금 해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냉장고에 붙어있었던 수열의 규칙을 확인하고 문을 열 수 있었다.

그곳엔 종이학과 편지가 있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강호동은 이를 기억해뒀고, 최다중의 행동에 주목하면서 점차 편지가 뜻하는 바를 알게 됐다. 이는 나중에 매우 중요하게 쓰였다. 바로 간호사의 사물함 비밀번호 힌트가 됐기 때문. 강호동은 탈출 폭격기 다운 면모를 보여줬고, 스스로 과하게 뿌듯해하는 모습으로 예능까지 책임졌다.

그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에 만난 장기 두는 환자와 장기 게임에서도 예상보다 빨리 이겼다. 김종민과 김동현은 '조마테오 원장을 믿지 마라'는 글씨를 발견하는 등 각자 얻은 힌트를 조합해 어떻게 탈출할지 고민했다. 그런데 그때 피를 흘리는 환자가 갑자기 휴게실에 들어왔고 아수라장이 됐다. 다시 병실로 들어간 뒤에는 김종민이 조마테오 원장에게 불려갔다.

조마테오 원장은 알고 보니 퇴마사였다. 김종민이 맑은 영혼을 가졌다며 자기를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김종민은 '조마테오 원장을 믿지 마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조마테오 원장을 따라갔다. 나머지 멤버들은 간호사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하로 향했고 그곳에서 다른 환자가 말한 살인마 환자를 보고는 혼비백산해 달아났다.

'노약자 심약자 주의' 경고가 나올 만큼 무서운 장면이 여럿 등장하며 공포심을 유발했다. 역시 공포 요소가 있어야 몰입도가 높아지는 '대탈출2' 멤버들 특성에 따라 재미는 배가될 전망. 다음주에 펼쳐질 본격적인 탈출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5월 걸그룹 브랜드평판 블랙핑크·트와이스·아이즈원, 1~3위

2019년 5월 걸그룹 브랜드평판 조사 결과 블랙핑크, 트와이스, 아이즈원이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12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밝힌 걸그룹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는 블랙핑크, 2위는 트와이스, 3위는 아이즈원, 4위 레드벨벳, 5위 모모랜드가 차지했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이다. 걸그룹 브랜드 평판지수는 걸그룹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측은 "2019년 5월 걸그룹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블랙핑크 브랜드에 대한 랭크분석에서는 '이쁘다, 귀엽다, 멋지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뚜두뚜두, 유튜브, 제니'이 높게 나왔다. 블랙핑크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비율 분석에서는 긍정비율 73.01%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걸그룹 브랜드 평판지수는 2019년 4월 10일부터 2019년 5월 11일까지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다.

오늘의 운세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음력 4월 10일)

▶쥐띠 남들은 건너가는데 당신은 도전도 하지 않고 겁부터 내는가. ㄱ, ㅇ, ㅊ성씨 이제까지 끌어오던 일 안 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힘이 약하면 3, 4, 12월생과 동업도 가능하다. 온 가족이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라. 더욱더 내실을 기할 것.

▶소띠 나만의 욕심을 충족하려다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 수 있음을 알라. 4, 5, 9, 11월생 현재만 생각 말고 미래를 추구할 것. 과욕은 금물. ㄱ, ㅈ, ㅎ성씨 언행 조심. 망신수 따를 듯. 맺고 끊음을 분명히 할 때다. 본인의 위치를 신중히 생각할 것.

▶호랑이띠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분해야 구설을 막을 수 있다. 1, 2, 7월생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존심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5, 9, 10월생 ㅂ, ㅅ, ㅇ성씨 애정의 삼각관계로 갈등 겪을 수. 앞에 닥친 일부터 추슬러서 헤쳐 나갈 것.

▶토끼띠 가도 가도 끝이 없다고 절망하는 것은 아직 금물. 1, 3, 5, 8월생 직장 일은 순조로울 수 있으니 우환 아니면 자녀걱정이 생기겠다. ㄱ, ㄹ, ㅎ성씨 혼자서는 안 되니 범, 토끼, 돼지 띠와 상의하면 쉽게 풀릴 듯. 파란색이 행운. 북, 서쪽이 길.

▶용띠 자신이 진출할 곳은 다른 데에 있다. ㅂ, ㅇ, ㅈ, ㅊ성씨 다시 내놓은 것 매매가 안 되니 애타는 격. 무리하게 시작한 것 무슨 일이든 정도를 지키며 진행해야 한다. 1, 3, 4월생 윗사람과 협력을 이뤄서 추진할 때 성취운이 강함을 알라.

▶뱀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 웃음꽃이 필 것이다. 옳긴 것을 후회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시간을 두고 해결책을 강구할 것. 2, 7, 10월생 자녀와 애정 문제를 심사숙고하라. 되풀이되는 원망 소리 없도록 하라.

▶말띠 ㄴ, ㅇ, ㅈ, ㅊ성씨 금전거래는 골치만 아프고 우정도 멀어지는 격. 뒤로 살아야지 앞으로 잡다가 애정의 늪에 빠질까 염려된다. 7, 9, 11월생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짜증내지 말고 지혜롭게 승부를 걸어봄이 좋겠다.

▶양띠 반성하고 근신함이 좋겠다. 1, 5, 9월생 상대의 불만을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쯤은 시인하라. 사업에서도 더욱 분발할 것.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 쥐, 말, 양 띠의 마음을 읽어주고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임할 것. 남, 서쪽이 길.

▶원숭이띠 자신감이 넘치나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니 답답하겠구나. ㄱ, ㅈ, ㅎ성씨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0, 11, 12월생 자신 없을 땐 붉은색으로 새로운 마음 갖고 추진하라. 손재수 조심.

▶닭띠 서운하게 대하면 자신의 마음도 불편함을 알라. 3, 7, 11월생 동업자와 의견 대립. 자녀들과 대화가 필요할 때. 천국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 마음을 넓게 가질 것. 들어앉아 있으니 짜증이 심해지고 신병까지 우려되는구나.

▶개띠 급히 서둘다가 지금보다 더 불이익 당할 듯. 1, 3, 6월생 모든 문제는 시간을 두고 풀어라. 마음이 어두우면 가정도 사업도 침체되는 운. ㄱ, ㄴ, ㅅ, ㅊ성씨 지나치게 친절하게 접근하는 자 피함이 좋겠다. 둘보다 하나에 만족할 것. 구설 조심.

▶돼지띠 토끼, 돼지, 닭 띠를 경계하지 말라. 손잡고 일할 때 길이 열릴 듯. 서로가 서로를 감싸 주어도 힘든 상황에서 각자 따로 행동하니 더욱더 헤어나기 힘들구나. 5, 10, 12월생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것.